



2024년 7월호  
VOL.352

# 흥미진진 공주





## 공주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공주시의회(의장 윤구병)가 6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부터 10일까지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1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8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

회했다. 윤구병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꼼꼼히 살펴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

### - 공주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서각 휴’ 작품 전시 -



공주시 평생학습 특성화 학습자들의 작품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서각 휴’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학습자들은 서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서각(書刻)은 나무나 돌 등의 재료 위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는 예술 형태로 한국의 전통 예술 중 하나다. 주로 목재를 사용해 나무 표면에 글자를 조각한 뒤 채색하거나 자연 그대로의 나무 결을 살려 작품을 완성한다.

윤구병 의장은 “서각은 단순히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감정을 표현하는 깊은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작품 감상을 통해 학습자들의 내면과 메시지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 5분 발언**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방안 마련과 반려문화 확산 노력 촉구**



**이용성**  
공주시의회 의원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또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에서는 2024년 5월 24일 기준 반려인 4,096명이 총 6,117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공주시 인구가 10만 명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약 6%의 수치로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조한 동물등록률에 따라 공주시의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발생한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3년간 공주시에서 구조한 유기동물은 1,298마리에 달한다. 이 중 소유자에게 반환한 동물은 94마리에 불과했다.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는 유기 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 방안이란 결국 바람직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등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빠짐없이 등록해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정보,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기본 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농촌지역 실외 사육건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 개최를 제안한다. 입양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목욕봉사, 미용봉사, 사진촬영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모집한 자원봉사 인력은 2025년 동물보호센터 완공 이후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 바람직한 반려문화와 유기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 공주시에서도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공주시는 자동차로 여행하는 여행객의 비중이 높고 하림펫푸드가 소재하고 있어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기에 좋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관광지 등 인프라를 점점 구축해 나간다면 침체되어 있는 공주 관광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의원도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함께 공주시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